

완주중, 전국가을철중고배드민턴선수권대회 우승

올해 모든 배드민턴대회 석권

완주중학교(교장 조계복)가 2019 전국가을철중고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완주중(감독 윤미화, 코치 전으뜸)은 8일 경북 청송군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19 전국가을철중고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중학부 단체전에서 전남화순중을 3-0으로 이기고 우승했다.

1경기 단식에서 김태립(완주중)이 김하빈(화순중)을 2-0(21:17, 21:11), 2경기 단식에서도 박승민(완주중)이 정민재(화순중)를 2-1(8:21, 21:17, 21:8)로 이기고, 3경기 복식에서 유준서·임관희(완주중)조가 김하빈·정민재(화순중)조를 2-0(21:17, 21:14)으로 이겨 완주중이 3-0 완벽하게 승리해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완주중은 올해 밀양 중고연맹회장기와 김천 불철중벌리그전, 익산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영암 여름철중벌리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화순 제10회 이용대올림픽 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학선수권대회에 이어 청송 전국가을철중고배드민턴선수권대회까지 모든 대회를 석권했다. 이는 2000년 우리학교 배드민턴부 창단 이래 전무후무한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전으뜸 교사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학부모 등



완주중학교가 2019 전국가을철중고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오늘 영광이 있었다"며 "학생들의 열정과 투지가 만들어낸 성과로서 앞으로도 더욱 더 실력을 갈고 닦아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완주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진행... 관계기관·이용객 참여

완주산업단지사무소가 완주소방서와 합동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10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최근 완주소방서와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19년 합동소방 훈련을 진행했다.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훈련에서는 화재 발생시 자위소방대와 소방서의 유기적 역할부담을 통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했다.

또한, 복지관내에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어린이집, 근로자건강센터,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완주예총 등을 비롯한 이용객 모두가 대피 훈련에 참여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참가자들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 초기 진압 능력을 함양했다.

강명완 소장은 "화재는 예고없이 발생하므로 반복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입주자 및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북전주세무서, 태풍 피해 장수 사과 농가 돕기 나서

북전주세무서(서장 박인호)는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하며 한반도를 할린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장수군 사과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장수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홍로사과의 수확시점에 맞춰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열어 사과 판로를 확보해 왔으나 올해에는 축제가 취소돼 장수군 사과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북전주세무서 박인호 서장과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장수군 사과 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축제 기간에 팔기로 예정되었던 사과를 구입했다.

북전주세무서 직원들이 구입한 사과는 총 112박스 약 300만원에 달한다. 박인호 서장은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지나칠 수 없어 북전주세무서 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과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태풍이 할린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 전통시장 안전 컨설팅

최근 남원소방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한 명절나기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고 있는데 가운데 10일 조용주 소장서장은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조 서장은 이날 공설시장 및 용남시장 등 전통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장 주변 화재취약요인 제거지도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요령지도 ▲소방시설 및 비상구 적정성 확인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사용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통한 소방시설 100% 가동 유지 및 화재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파출소, 추석 특별방범활동 나서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는 10일 운봉읍사무소에서 개최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마을 이장 등 45명을 상대로 관내 치안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추석 특별방범활동에 나섰다.

이날 활동에서는 빈집털이 등 강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과 현금 다액 인출시 오토바이 납치기 및 소매치기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을 설명하고, 차량 운행 시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청렴동아리 춘향골프프리미 불우이웃 돕기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 청렴동아리 춘향골프프리미는 추석을 맞이해 10일 동충동의 독거세대를 찾아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이날 조휴역 청문감사관 및 청렴동아리(춘향골프프리미)회원들은 어르신께서 불편한 품으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쌀과 생필품을 전달한 것이다. 윤모 어르신은 "치안 업무에도 바쁜 경찰관들이 찾아와 도와니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경찰, 추석명절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

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10일 추석명절을 맞아 진안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영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진안군 협의회(회장 최경호)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탈북민 가정을 찾아가 상품권 및 선물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며 의미 있는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진안경찰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및 보안협력위원회는 매년 명절에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문·격려하며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고자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연재 서장은 "정성치안을 다하여 탈북민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도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경찰, 명절 전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주력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풍산 주민보호센터 등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치매 어르신들 대상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원등록을 실시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 및 사진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전 발생 시 대상자 조기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안전 Dream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등록할 수 있다.

/순창=이영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